

학교교육연구

제14권 1호 (통권 20호)
2024년 6월 30일

논문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지원 사례 연구

문가영 · 성지연 1

유아특수 순회교육 운영실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인천광역시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이희정 · Jung, Grace Eunyoung · 백상수 17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교사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신원우 · 차정호 35

MZ세대의 신조어로 알아보는 촌락 활성화 방안

심민경 · 이영아 51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내러티브 텍스트 유형과 핵심개념 간 관계: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단원을 중심으로

장현아 65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지원 사례 연구

문가영*

성지연**

요약

본 연구는 에듀테크의 교육현장 도입이 시도되기 있는 시기에, 유아교육현장에 에듀테크를 도입해 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놀이 지원방안 중 하나로 에듀테크를 지원하고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존매체와 에듀테크의 콜라보를 통한 놀이의 확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주도적인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현장에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에듀테크, 놀이지원, 사례 연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 수성대학교 부설 리오바 어린이집 교사

I. 서론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든 21세기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분야에서 빠르고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환경은 에듀테크(EduTech)에 기반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IT 기술을 교육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흐름을 의미한다(홍정민, 2017). 에듀테크의 역사는 1960년 미국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가 텔레비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박광렬, 2023). 이후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의 등장, CD-ROM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상호작용형 전자칠판 등이 수업에 활용되었으며, 21세기 들어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ICT 기기와 플랫폼, 콘텐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박광렬, 2023). 이러한 에듀테크의 의미를 정리하면 좁게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거나 학습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기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넓게는 ‘이러한 것들이 활용되는 교육환경이나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박광렬, 2023).

최근 미래교육 담론에서 에듀테크의 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이은상, 이동국, 2021). 시공간의 제약 극복, 학습경험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서향희, 박주희, 2021). 에듀테크는 COVID-19와 같은 질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에듀테크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자원과 연결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기존 콘텐츠에서 제공하지 못한 몰입감과 실재감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서향희, 박주희, 2021).

이러한 교육적 적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기술의 도입이 비교적 느리며 2017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서향희, 박주희, 2021) 에듀테크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교

육현장에 에듀테크를 도입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관련된 에듀테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주로 초·중 이상의 학교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향희, 박주희(2021)는 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컴퓨터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될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에듀테크의 활용이 불편한 수업상황을 개선하는 ‘실감형 교육’으로 기능을 하며, 에듀테크 활용의 걸림돌로는 ‘교사의 낮은 인식’을 꼽았다. 에듀테크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의 활용과 관리를 지원하는 테크매니저의 도입이 필요하며, 교육적 에듀테크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광렬(2023)은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및 적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대상은 63명이었고, 이 중 유치원 교사가 1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외 62명이 초·중·고 이상의 교사에게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용하는 이유는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수업 전·후보다 수업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훈련, 사용성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그 외 에듀테크 관련 연구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학교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김향보, 이동원, 이민혜, 2023)를 살펴본 연구, 교원 양성기관의 에듀테크 활용실태 분석 및 에듀테크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임철일, 한옥걸, 채지윤, 이진연, 이다연, 2023), COVID-19 상황에서 형성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백승엽, 2023), 스마트기기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과학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김도현, 2023), 에듀테크에 기반한 앱 디자인 수업이 디자인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김지현, 202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에듀테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에듀테크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 능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정경미, 2023)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 역량과 유아 중심의 에듀테크 사례 연구(신인선, 2019), 증강현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에듀테크가 유아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여진, 2019)가 있다. 이종만, 권이정(2022)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살펴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민영, 한유진, 김호(2023)는 증강현실(AR) 기반 그림책을 활용한 디지털 놀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승혜(2023)는 유아교육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 및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유아교육분야에서도 에듀테크의 적용을 위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교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는 유아의 놀이와 흥미를 관찰하고 놀이의 전개 방향에 따라 놀이를 확장할 수 있는 매체를 지원하는 놀이 지원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지원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경험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게 하여 놀이를 지속하는 효과가 있으며 놀이에 대한 몰입과 지속성을 확장할 수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는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고 발달을 도모하며 미래사회 역량을 향상시킨다(이여정,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매체로서의 에듀테크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지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에듀테크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에듀테크를 지원한 유아의 놀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연구현장, 연구참여자, 연구절차,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현장

본 연구를 위한 연구 현장은 D시에 위치한 L어린이집 S반이다. L어린이집은 2세 2학급, 3세 2학급, 4세 2학급, 5세 2학급 총 8학급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현장인 S반은 5세 학급으로 남아 11명, 여아 9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학급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S반 유아 20명(남아: 11명, 여아: 9명)과 담임교사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경험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중요

하다고 보고, 평소 에듀테크에 관심이 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학급을 목적표집하였다.

S반 담임교사는 9년차 교사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대학원에서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재연구및지도법’과목을 수강하며 유아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인터넷 검색, 에듀테크의 직접 활용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놀이 지원 가능성이 있는 에듀테크를 분석하고 목록화하였다. 선정된 에듀테크는 아이패드, 스마트폰, 스마트폰 현미경, 크로마키 애플리케이션, 스크루블리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드로잉, QR코드, 세이펜 등이다. 선정된 매체 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활용된 매체는 아이패드, 스마트폰 현미경, 크로마키 애플리케이션, QR코드이다. 크로마키는 TV 방송의 화면 합성 기술로 색조의 차이를 이용하여 어떤 피사체만을 뽑아내어 다른 화면과 합성하는 방법이다. 배경이나 인물을 촬영한 뒤 하나를 분리하여 다른 카메라에 옮겨 구성하는 것으로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QR코드의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2차원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 표시 방법으로 사진,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의 정보를 담아두고 스마트폰 렌즈로 촬영하여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매체이다. 스마트폰 현미경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활용하여 촬영한 장면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매체이다.

둘째,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을 안내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셋째,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은 매체 안내 및 매체 지원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매체의 이름과 사용방법, 매체 지원 시 유아의 놀이 지원 및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지원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넷째,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에듀테크를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섯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참여 관찰을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의 과정을 수기로 기록한 자료와 사

진 자료, 교사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23년 3월부터 S반 담임교사로 S반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하였다. 다양한 놀이 지원방안 중 에듀테크 지원 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놀이 사례를 기록하고 교사 저널을 작성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놀이와 발달과 관련된 여러 기록 중 본 연구를 위한 기록을 정리하고 수집한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 자료는 놀이 과정을 수기로 기록한 자료와 사진 자료, 교사 저널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유아의 놀이 경험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지원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기존 매체와 에듀테크의 콜라보를 통한 놀이의 확장,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주도적인 배움이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매체와 에듀테크의 콜라보를 통한 놀이의 확장

에듀테크는 기존 매체와 혼합하여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놀이의 지속 기간을 연장하였다. 공룡박물관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뒤 유아들의 공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사는 공룡 화석 만들기 놀이를 제공하였다. 공룡화석 만들기 놀이를 하는 과정에 담임교사가 아이패드를 제공해주니 유아들은 보다 정교하게 화석을 만들고 비교하며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석 만들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을 아이패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공룡화석과 비교하며 정교하게 만드는 노력을 반복하거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며 더욱 정교한 화석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성공룡박물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을 관찰하며 유아들의 공룡화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룡화석에 대한 관심을 놀이로 지원해주기 위해 화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자유롭게 공룡화석을 만들고 굳히고 깨뜨려보며 자신이 만든 공룡화석의 모양이 진짜 공룡화석의 모양과 유사한지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검색해보고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만든 화석을 아이패드의 카메라로 비추어보며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화면으로 발견하며 더 정교한 화석을 만들기도 하였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그림 1]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공동화식 만들기 놀이를 즐기는 유아

인기 캐릭터인 시나모롤 인형과 인형집을 만들며 놀이하던 유아들에게 교사는 유아들이 직접 시나모롤 집에 들어가는 놀이를 제안하였다. 유아들은 몸집이 큰 자신들이 시나모롤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즐거워하며 놀이에 참여하였다. 이런 놀이 모습을 본 남아들이 다가오더니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포켓몬과 관련하여서도 놀이를 하고 싶다며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그리고 잘라 만들던 아이들이 시나모롤 집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함께 시나모롤 집 도안을 찾고 유아에게 “너희가 이 집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 같아?”라고 물으니 흥미를 보였다. 크로마키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록 천을 꺼내고 패드를 활용하여 크로마키 앱으로 유아들의 모습과 배경을 합성해주었다. 여아들의 놀이 모습을 바라보던 남아들이 다가오더니 포켓몬 배경도 만들어달라며 놀이에 참여하였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그림 2] 크로마키 앱으로 시나모롤 집에 들어가는 놀이를 하고 감상하는 유아

종이접기 놀이를 즐기는 유아들이 집에서 종이접기 관련 채널을 본 것을 회상하며 종이접기 방법을 알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교사가 패드를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아들은 종이접기를 하며 본인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교사가 지원해주자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여 유튜브 채널 만들기 놀이를 진행하였다.

팽이접기 놀이가 열풍이다. 유아들은 팽이를 접는 방법을 안내하는 채널을 보고 싶다고 했다. 유아들은 패드를 이용하여 네모아저씨의 팽이 접기 채널을 보며 종이접기를 한다. 한 유아가 “우리도 네모아저씨처럼 유튜브 채널 만들고 싶다. 어린이샘 채널 만들까?”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들이 유튜브 촬영과 채널 만들기에 관심을 보여 유튜브 촬영 놀이를 제안하였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종이를 접는 사람, 따라 접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대사, 배경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관심이 있는 유아들이 모여 서로 역할과 놀이 장소를 정하고 소품, 배경판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대사를 준비하고 촬영을 준비하며 “채널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우리 이름 하나씩 따서 진채채널이라고 할까?”라고 하며 서로의 의견을 구한다. 소품, 배경판, 대사 준비 등 3일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촬영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유아들이 준비한 놀이가 역할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튜브 종이접기 채널 만들기 놀이가 펼쳐진다. 아이패드로 채널 촬영을 하고 자막을 넣어주어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그림 3] 유튜브 채널 놀이를 준비하고 즐기는 유아

2. 에듀테크를 활용한 주도적인 배움

유아는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 역시 유아에게 놀이를 통한 주도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끝말잇기 놀이를 AI와 함께 하며 놀이를 즐기는 유아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AI를 활용한 놀이의 경우 누적되는 점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성취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친구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협력하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이 아이패드의 ‘말잇북’을 활용한 끝말잇기 놀이를 즐겨한다. AI와의 끝말잇기 대결인데 음성으로 단어를 말하거나 키패드를 눌러 다음 단어를 입력하며 끝말잇기 놀이를 하였다. 음성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입력이 어려운 친구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결에 참여하였다. 대결이 마무리되면 점수가 누적되는 것을 보고 점수가 늘었을 때마다 기뻐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듯 하였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그림 4]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곤충을 관찰하는 유아

스마트폰 현미경은 유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에 한두 번 관찰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곤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보지 못한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표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아들이 곤충생태원에 견학을 다녀오면서 곤충에 대한 관심이 커져 스마트폰 현미경을 지원했다. 유아들이 채집한 곤충을 관찰하며 확대되어 자세히 보이는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곤충을 표상하는 활동에서 점차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여러 번 자세히 관찰하고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관심은 깊어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도감’형태의 책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현미경뿐만 아니라 QR코드에 정보를 넣을 수 있음을 알고 있던 유아들은 QR코드를 활용하여 곤충도감을 제작하였다. 곤충도감을 제작하고 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이 바깥놀이를 하던 중 놀이터, 나무집, 텃밭, 열매집, 꼭대기 숲에서 더 많이 나오는 곤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름을 지어주는 놀이를 하였다. 유아들은 장소에 따라 많이 나오는 곤충들이 서로 다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포켓몬 도감’을 연상한 ‘곤충도감’을 만들기로 한다. 장소를 나누어 각자 역할을 담당하고 장소의 이름과 많이 나타나는 곤충들을 조사

하여 적는 모습을 보였다. 포켓몬 도감은 포켓몬이 나와서 말을 해준다는 것을 떠올리며 곤충도감도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지난번 캠핑 놀이를 할 때 QR코드를 넣어 여행 지도를 만든 것을 떠올리며 곤충도감에 QR코드를 넣어 제작하기로 한다. QR코드에 곤충사진, 그림과 곤충 설명을 넣어 곤충도감을 완성하고 전시하였다. 유아들은 동생들에게 곤충과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곤충도감을 만든 후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서 새로운 곤충을 발견할 때마다 곤충도감을 추가해야 한다며 곤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 연구참여자, 저널)



[그림 5] QR코드를 활용한 곤충도감을 만드는 유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유아의 놀이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진행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 매체와 에듀테크의 콜라보를 통한 놀이의 확장,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주도적인 배움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며 에듀테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의 관심사인 공룡화석 만들기, 인기 캐릭터 그리기 놀이, 종이접기 놀이를 즐겼다. 이들 놀이는 공룡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 관심이 시작된 사례, 인기 캐릭터 시나모롤에서 시작된 놀이 사례, 종이접기 놀이에서 시작된 놀이 사례이다. 즉 이러한 놀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에듀테크와는 관련성이 없이 시작된 사례이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룡 화석 만들기 놀잇감, 시나모롤 배경지, 색 종이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아이패드, 크로마키라는 에듀테크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놀이의 지속기간이 연장되고 놀이가 정교해지며 새로운 양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룡화석놀이는 좀 더 정교한 화석을 제작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시나모롤 놀이는 유아가 시나모롤 캐릭터를 만들어 제3자의 입장에서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모를 집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놀이를 이끌었다. 종이접기 놀이는 종이접기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생산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즉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유아는 온-오프라인, 실제-가상세계를 경계없이 오가며 확장된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윤민아, 한유진, 2023).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제공되던 전통적인 매체와 에듀테크가 함께 지원될 때 놀이의 의미와 깊이가 확장될 수 있으며, 유아가 더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지원을 통해 유아들은 좀 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놀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I와의 끝말잇기 놀이를 통해 끝말잇기에 해당하는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사회성발달, 누적되는 점수를 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정서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가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창의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유아의 발달을 이끌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김경철, 오아름, 2021; 오세경, 이재은, 2022; 한지원, 2022)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에듀테크의 적용에 대해 에듀테크 자체에만 개인이 몰입하게 되어 사회성이나 정서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에듀테크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아는 곤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관찰에 그칠 수 있었던 곤충 관찰이 지속될 수 있었고,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통해 곤충의 생김새와 구조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가졌다. 유아들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혼자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방안으로 곤충도감을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내었다. 그리고 곤충도감을 제작하기 위해 곤충 그림 그리기, 곤충에 대한 정보 설명하기, QR코드에 정보 담기 등의 다양한 일들을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곤충도감을 제작하였다.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에듀테크를 제공함으로써 놀이가 지속,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고 QR코드를 제공해줌으로써 곤충도감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적절한 에듀테크의 제공이 유아의 관심을 지속, 확장하여 의미있는 놀이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술이 놀이의 맥락을 확장하여 유아의 배움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이민영, 한유진, 김호(202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 사회의 도래,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의 교육적 가치로 인해 유아교육현장은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유아교육과정에 ICT 기술을 포함하는 OECD 회원국이 증가하고 있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 영국, 미국 등 각국에서 영유아 시기의 올바른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장민영, 한영미, 2023). 우리나라 교육부 역시 유아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경험하도록 할 것을 발표하였으며(교육부, 2020), 2023년에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에서 부모·교사·유아의 디지털 지원방안 구체화 정책 추진,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운영 역량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 이처럼 유아교육현장은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에 유아교육현장에 에듀테크를 적용함으로써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짧은 자료수집 기간, 단편적인 자료수집으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놀이에 에듀테크를 지원하고 놀이의 확장 양상을 참여 관찰, 면담, 놀이 결과물 등의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에듀테크를 지원한 놀이의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유아교육현장의 하루일과인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에듀테크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에듀테크의 현장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의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에듀테크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에듀테크의 종류와 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유아에게 유의미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승혜(2023) 역시 유아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 적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에듀테크 관련 연수가 필수적이며,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교수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에게 제공하기에 적절한 에듀테크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 적용 사례를 수집하여 내실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사의 에듀테크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환경에서의 에듀테크의 활용은 교사의 디지털 매체

에 대한 신념과 태도인 효능감 등 관련 변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Albirini, 2006).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 자아효능감, 디지털 놀이교수효능감,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교육부(2020).
- 교육부.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2023).
- 김경철, 오아름 (2021). 증강현실(AR)기반 교육용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169-195.
- 김도현 (2023) 스마트기기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과학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혜 (2023). 유아교육에서의 에듀테크 활용실태 및 현직교사의 예비교사의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23). 에듀테크에 기반한 앱 디자인 수업이 디자인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보, 이동원, 이민혜 (2023).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학교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초등교육연구*, 38(2), 53-80.
- 박광렬 (2023)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및 적용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6(4), 377-395.
- 백승엽 (2023). COVID-19 상황에서 형성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향희, 박주희 (2021). 학교현장에서 에듀테크(Edu Tech)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3), 253-273.
- 신인선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 역량과 유아 중심의 에듀테크 사례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진 (2019). 에듀테크가 유아들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증강현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경, 이재은 (2022). 유아의 디지털 놀이 경험이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7(5), 219-244.
- 윤민아, 한유진 (2023).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에 대한 인식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5(2), 28-60.
- 이민영, 한유진, 김호 (2023). 증강현실(AR) 기반 그림책을 활용한 디지털 놀이 사례 연구, 열

- 린유아교육연구, 28(1), 147-174.
- 이여정 (2024).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자아효능감과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의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조절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상, 이동국 (2021). 초·중등학교 에듀테크 운영에서 테크매니저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5(1), 195-206.
- 이종만, 권이정 (2022). 유아교사들의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 어린이미디어연구, 22(1), 153-185.
- 임철일, 한옥걸, 채지윤, 이진연, 이다연 (2023). 교원 양성기관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 분석 및 에듀테크 분류 체계.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6(4), 77-87.
- 장민영, 한영미 (2023). 영국, 미국, 호주의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 분석.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8(1), 5-28.
- 정경미 (2023). 에듀테크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원 (2022). 코딩놀이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메타인지 경험. 유아교육연구, 42(5), 249-270.
- 홍정민 (2017). 에듀테크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서울: 책밥.
- Albirini, A. A. (2006). Teacher's attitudes towa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case of Syrian EFL teachers. *Journal of Computers and Education*, 47(4), 373-398.
- OECD (202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arting Strong: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Starting Strong, OECD Publishing.

Case Study on Supporting Play with Edutech

Moon, Ga-Young, Sung Ji-Yeon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edutech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As one of the measures to support children's play, we tried to support edutech and examine how children's play takes plac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expansion of play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existing media and edutech" and "lead learning using edutech" were achiev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edutech into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edutech, play support, case study

유아특수 순회교육 운영실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인천광역시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이희정*

Jung, Grace Eunyoung**

백상수***

요약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순회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영유아 순회교육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임 및 저경력 교사가 순회교육에 우선 배치되고 있었다, 순회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운영방안 및 지침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적이고 비지속적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하였다.

핵심어 : 유아특수교육, 순회교육, 운영실태 조사,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 Associate professor at Mount Saint Mary College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 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동법 제25조 순회교육 등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 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순회학급과 순회교육대상 학생수에 대한 통계가 기록되었다. 1998년 전국 순회학급의 수는 56개이며,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348명으로 보고 되었다. 2002년 전국 순회학급의 수는 174개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1,105명이며, 2006년 순회학급수 534개 학생수 3,330명, 2010년 순회학급 677개학생 수 8,083명으로 나타나고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순회학급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의 순회학급수는 677개로 98년 순회학급수 56개보다 약 1200%로 증가하였다. 순회학급의 증가는 순회교육대상 학생수와도 연결되어있다. 2010년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8,083명으로 1998년의 학생수 348명보다 약 2300%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기록된 순회교육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학교에서 순회·과견되거나 특수학급에서 순회과견겸임으로 운영되었으며 2010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뿐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순회교육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회학급과 순회교육대상 학생수의 증가는 2010년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전국순회학급의 수는 677개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6,483명, 2018년순회학급수 569개 학생수 4,292명, 2022년 순회학급수 545개 학생수 4,565명이다. 2010년 677개였던 순회학급은 2022년 545개로 132개(약19.5%) 가 감소했다.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2010년 8,083명에서 2022년 4,565명으로 3518명(약43.5%) 가 감소했다. 순회교육실태, 인식개선방안에 관한 순회교육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숙(2013)은 광주, 전남지역의 순회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의 방문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순회교육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은 순회교사 혼자에 의해 대부분 계획되어 운영되어 진다고하였다. 정진숙(2021)에서도 순회교사와 담임교사의 협력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있다.

이시현(2013), 이재현(2013)에서 순회수업의 문제점으로 수업환경의 미흡과 순회교사의 업

무과중으로 순회교육준비 및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장열이(2017)는 순회교육 운영 및 순회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은 순회교육 담당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일반교사보다 더 즐겁고 배우는 학습도 더 쉽고 재미있다고 인식한다고 보았다. 김은숙(2013), 이재현(2013), 김형진(2016), 정진숙(2021)에서 순회교육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순회교사의 처우 문제와 순회교육 교육과정의 부재라고 제시하였다.

순회학급과 순회교육대상 학생수의 증가는 2010년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전국 순회학급의 수는 677개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6,483명, 2018년순회학급수 569개 학생수 4,292명, 2022년 순회학급수 545개 학생수 4,565명이다. 2010년 677개였던 순회학급은 2022년 545개로 132개(약 19.5%) 가 감소했다. 순회교육대상 학생수는 2010년 8,083명에서 2022년 4,565명으로 3,518명(약43.5%) 가 감소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 현황과 순회교사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순회교육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 1) 인천광역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순회교육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2) 인천광역시 순회교육 담당교사로서 유아특수교사의 순회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인천광역시 순회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순회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순회교사의 성별, 연령, 교육경력, 임용현황 등 순회교사에 대한 기초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순회교사에 대한 기초사항

구분		n	%
성별	남	6	22.22
	여	21	77.78
연령	20대	10	37.04
	30대	16	59.26
	40대	1	03.70
	50대 이상	0	00.00
교직경력	3년 미만	8	29.63
	3년-5년 미만	4	14.82
	5년-10년 미만	9	33.33
	10년 이상	6	22.22
소지자격	1급 정교사	19	70.37
	2급 정교사	8	29.63
순회교육경력	3년 미만	24	88.89
	3년-5년 미만	2	07.41
	5년-10년 미만	1	03.70
	만 10년 이상	0	0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에 대한 조사를 위한 도구로, 기존 연구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순회교육의 운영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등에 관한 중요한 측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설문 조사 도구는 순회교육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 설문 문항은 채택. 순회교육, 초, 중등학교의 순회교육, 그리고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교사 협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및 실태 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연구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순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을 고려하여 문항이 구성되었다. 최초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예비조사, 관련 문헌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1차 수정되었고, 이를 순회 교육 담당교사 5명과의 협의를 통해 2차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설문 문항은 특수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지는 기초정보는 5문항, 순회교육 운영실태 11문항, 순회교육에 대한 인식 6문항, 순회교육에 대한 요구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2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를 통해 향후 교사들의 의견과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며, 모호한 표현이나 낮은 변별력을 가진 문항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으로 측정되었다.

2) 본조사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담당자의 협력을 통해 순회교육 담당경험이 있거나 담당중인 유아특수교사 명단을 입수하여 이 조사에 대해 사전에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7부가 회수되었다.

4. 자료 처리

전체적인 자료 처리에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20.0을 활용하였다. 순회교육의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순회교육의 운영실태

1)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소속

<표2>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소속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소속	공립 유치원 일반학급	11	40.75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1	03.70
	사립 유치원	13	48.15
	특수학교 순회학급	1	03.70
	공립 유치원 순회학급	1	03.70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소속을 알아본 결과 사립유치원이 13명(48.1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11명(40.75%),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학급, 공립유치원 순회학급은 각 1명(3.7%)으로 나타났다.

2) 순회교사가 담당했던 총 유아 수

<표3> 순회교사가 담당했던 총 유아 수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가 담당했던 유아의 수	1명	1	03.70
	2명	10	37.04
	3명	3	11.11
	4명	8	29.63
	5명	5	18.52

순회교사가 담당했던 총 유아 수는 2명을 담당한 교사의 수가 10명(37.0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명을 담당한 교사가 8명(29.63%)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3) 순회교육을 받는 유아 1인당 주당 수업 횟수

<표4> 순회교육을 받는 유아 1인당 주당 수업 횟수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을 받는 유아 1인당 주당 수업 횟수	1회	4	14.82
	2회	21	77.78
	3회	0	00.00
	4회	1	3.70
	5회이상	1	3.70

순회교육을 받는 유아 1인당 주당 수업 횟수는 주당 2회가 21명(77.7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당 1회가 4명(14.82%) 순으로 나타났다.

4) 순회교육 1회시 수업시간

<표5> 순회교육 1회시 수업시간

구분	항목	명	%
1회순회교육 수업시간	30분 이하	0	00.00
	1시간 이하	0	00.00
	1시간30분 이하	2	7.41
	2시간 이하	13	48.15
	3시간 이하	12	44.45

1회 순회교육 수업시간은 2시간 이하가 13명(48.1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시간 이하 12명(44.45%) 순으로 나타났다.

5) 순회교사의 주당 총 수업시간

<표6> 순회교사의 주당 총 수업시간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의 주당 총 수업시간	2시간 이하	2	7.41
	4시간 이하	3	11.11
	6시간 이하	9	33.33
	8시간 이하	13	48.14

순회교사의 주당 총 수업시간은 8시간 이하가 13명(48.1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시간 이하가 9명(33.33%) 순으로 나타났다.

6) 순회교육시 이동수단

<표7> 순회교육시 이동수단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시 이동수단	도보	2	7.41
	대중교통	15	55.55
	자가용	10	37.04
	기타	0	00.00

순회교육시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 15명(55.5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가용이 10명(37.04%) 순으로 나타났다.

7) 순회교육 1회 실시를 위한 평균 이동시간(편도)

<표8> 순회교육 1회 실시를 위한 평균 이동시간(편도)

구분	항목	명	%
평균 이동 시간	10분 이하	1	3.70
	30분 이하	6	22.22
	1시간 이하	15	55.55
	1시간 초과	5	18.53
	기타	0	00.00

순회교육 1회 실시를 위한 평균 이동시간(편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하가 15명(55.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0분 이하는 6명(22.22%), 1시간 초과 5명(18.53%)으로 나타났다.

8) 순회교육시 장소

<표9> 순회교육시 장소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시 수업장소	항상 바뀜	4	14.82
	유아소속 통합교실	12	44.44
	유아소속 특수교실	0	00.00
	교실 외 공간(교무실, 특별실 등)	8	29.63
	가정 및 시설의 정해진 공간	3	11.11

순회교육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유아소속 통합교실에서 진행한다는 응답이 12명(44.4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실 외 공간(교무실, 특별실 등) 8명(29.63%), 항상 바뀐다는 응답이 4명(14.82%)으로 나타났다.

9) 순회교육시 필요한 교재교구의 준비

<표10> 순회교육시 필요한 교재교구의 준비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시 필요한 교재교구 준비	유치원 교재 교구 사용	1	03.70
	순회교사가 준비	12	44.44
	상황에 따라 혼합	14	51.86
	기타	0	00.00

순회교육시 필요한 교재교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조사한 결과, 순회교사가 준비하거나, 유치원 교재교구를 상황에 따라 준비한다는 응답이 14명(51.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회교사가 직접 준비한다는 응답도 12명(44.44%)으로 높게 나타났다.

9-1) 유아 1명에게 소요되는 순회교육 교재교구 예산(9번 문항 응답 시)

<표11> 유아 1명에게 소요되는 순회교육 교재교구 예산

구분	항목	명	%
유아1명에게 소요되는 교재교구 예산	없음	1	03.70
	5만원 미만	4	14.82
	5~10	6	22.2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9	33.33
	15~20만원	2	07.41
	20만원 이상	5	18.52

유아 1명에게 소요되는 교재교구 예산을 살펴본 결과,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수가 9명(33.33%)으로 가장 많았고, 5~10만원 미만이 6명(22.22%), 5만원 미만 4명(14.82%) 순으로 나타났다.

10) 순회교육시 준비시간

<표12> 순회교육시 준비시간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시 준비시간	1시간 이내	8	29.63
	2시간 이내	10	37.04
	3시간 이내	8	29.63
	3시간 이상	1	03.70
	기타	0	00.00

순회교육의 준비시간에 대한 응답에서 2시간 이내가 10명(37.04%), 다음으로 1시간 이내 8명(29.63%), 3시간 이내 8명(29.63%), 그리고 3시간 이상은 1명(03.70%)으로 나타났다.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육 형태 만족도

<표1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육 형태 만족도

구분	항목	명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육 형태 만족도	매우 불만족	0	00.00
	불만족	3	11.11
	보통	17	62.97
	만족	4	14.81
	매우 만족	3	11.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육 형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17명(62.9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이 4명(14.81%)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 순회교육에 대한 인식

1) 순회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표14> 순회교육의 효과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0	00.00
	효과적이지 않음	2	7.40
	보통	8	29.65
	효과적임	15	55.55
	매우 효과적임	2	7.40

순회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순회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15명(55.5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8명(29.65%) 순으로 나타났다.

2) 순회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표15> 순회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정도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전혀 충분하지 않다	9	33.35
	충분하지 않다	8	29.62
	보통	7	25.92
	충분하다	3	11.11
	매우 충분하다	0	00.00

순회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9명(33.35%)으로 가장 높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8명(29.62%) 순으로 나타났다.

3) 순회교육 대상 유아가 인근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

<표16> 순회교육 대상 유아가 인근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는 이유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대상 유아가 인근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는 이유	완전통합교육을 위해서	0	00.00
	특수학급이 떨어져서	2	7.40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서	18	66.68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완전통합교육을 위해서	4	14.81
	기타	3	11.11

순회교육 대상 유아가 인근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는 이유는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18명(66.6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완전통합교육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4명(14.81%) 순으로 나타났다.

4) 순회교육시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인식

<표17> 순회교육시 가장 어려운 분야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 시 가장 어려운 분야	생활지도	1	3.70
	문제행동(도전행동)지도	11	40.76
	부모 및 가족상담	4	14.81
	통합학급과의 연계	4	14.81
	놀이중심 교육과정 적용	6	22.22
	기타	1	3.70

순회교육 시 가장 어려운 분야는 문제행동(도전행동) 지도가 11명(40.7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 적용이 6명(22.22%) 순으로 나타났다.

5) 순회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표18> 순회교육 운영상의 문제점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 운영 상의 문제점	열악한 시설 및 지원	5	18.51
	장거리 이동	6	22.22
	수업시간의 부족	3	11.11
	행정적, 제도적인 어려움	11	40.76
	기타	2	7.40

순회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은 행정적, 제도적인 어려움이 11명(40.7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거리 이동 6명(22.22%) 순으로 나타났다.

3. 순회교사의 요구도 조사

1) 순회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

<표19> 순회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	1명	4	14.81
	2명	12	44.46
	3명	8	29.62
	4명	3	11.11
	5명 이상	0	00.00

순회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에 대한 적정인원은 2명이라는 답변이 12명(44.46%)으로 가장 높았고, 3명이라는 답변이 8명(29.62%) 순으로 나타났다.

2) 주당 순회교육 횟수

<표20> 주당 순회교육 횟수

구분	항목	명	%
주당 순회교육 횟수	1회	2	7.40
	2회	15	55.58
	3회	5	18.51
	4회	5	18.51
	5회 이상	0	00.00

학생당 적정 주당 순회교육 횟수는 2회가 15명(55.5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3, 4회가 5명(18.51%) 순으로 나타났다.

3) 1회 순회교육 수업시간

<표21> 1회 순회교육 수업시간

구분	항목	명	%
1회 순회교육 수업시간	30분 이하	1	3.70
	1시간 이하	14	51.87
	1시간30분 이하	6	22.22
	2시간 이하	4	14.81
	3시간 이하	2	7.40

1회 순회교육 시 수업시간으로 1시간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4명(51.8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시간 30분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명(22.22%) 순으로 나타났다.

4) 순회교육시 적절한 형태

<표22> 순회교육시 적절한 형태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시 적절한 형태	개별교육형 순회교육	9	33.33
	통합교육형 순회교육	13	48.16
	가정(시설, 병원)방문 순회교육	1	3.70
	기타	4	14.81

순회교육시 적절한 형태에 대한 답변은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이 13명(48.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별교육형 순회교육이 9명(33.33%) 순으로 나타났다.

5) 순회교사 배치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표23> 순회교사 배치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교사(본인)의 희망여부	10	37.05
	순회교육 경험	2	7.40
	특수교사 경력	2	7.40
	물리적 거리	2	7.40
	교사의 업무량	10	37.05
	이동수단 유무	1	3.70
	기타	0	0

순회교사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사(본인)의 희망 여부와 교사의 업무량이 10명(37.0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회교육 경험과 특수교사 경력, 물리적 거리가 각각 2명(3.70%) 순으로 나타났다.

6) 순회교육의 수업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

<표24> 순회교사의 수업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육의 수업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	순회교육 횟수 증가	5	18.51
	순회교육 시간 증가	0	00.00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0	00.00
	양질의 학습교수자료 공급	6	22.22
	통합교사와의 협력	11	40.76
	순회교육과정 운영지침 마련	5	18.51
	기타	0	00.00

순회교육의 수업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통합교사와의 협력이 11명(40.7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순회교육 횟수 증가와 순회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이 각각 5명(18.51%) 순으로 나타났다.

7) 순회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표25> 순회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순회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9	33.36
	학생수 감축	3	11.11
	순회교육 시수 감축	2	7.40
	이동수단 제공	2	7.40
	교재교구 및 학습자료 제공	0	00.00
	보조인력 제공	0	00.00
	교사의 연수기회 제공	0	00.00
	수업컨설팅 제공	6	22.22
	온라인 연계 서비스 구축	0	00.00
	순회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5	18.51

순회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순회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9명(3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업컨설팅 제공이 6명(22.22%) 순으로 나타났다.

8) 순회교사 우대방안

<표26> 순회교사 우대방안

구분	항목	명.	%
순회교사 우대방안	승진 및 기타 가산점 부여	1	3.70
	별도 수당 지급	12	44.45
	업무 경감	12	44.45
	복리 후생 증진	1	3.70
	기타	1	3.70

순회교사의 우대방안으로 별도 수당 지급과 업무 경감이 각각 12명(44.4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승진 및 기타 가산점 부여, 복리 후생 증진, 기타가 각각 1명(3.70)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순회교육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김효선, 1997). 하지만 제시된 바와 같이 순회교육의 환경은 열악하다.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20-30대가 많았고, 순회교육 경력 3년 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명확한 순회교육 지침이 없으며 행정적 제도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 및 저 경력 교사가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순회교사의 전문화와 순회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꾸준한 연찬회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회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청 수준의 운영방안 및 지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비일관적이고 비지속적인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순회대상 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순회교육을 실시한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순회교육은 지역에 따른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인천광역시 외 다른 지역에 순회교육 운영에 대해 연구되어 전국적인 유치원 순회교육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수진, 하창완, 정대영 (2020). 순회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형 순회교육 협력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인식. 정서 행동장애연구, 36(1), 113-137.
- 고은정, 임경원 (2015).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의 경험과 의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101-131.
- 김선이 (2022).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 김은숙, 김정연, 김시원 (2013). 광주 전남 순회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敎科敎育研究 37(1), 33-50.
- 김현집, 손승현 (2010). 통합교육형 순회교육 운영 현황과 순회교사의 인식. 통합교육연구, 5(2), 19-39.
- 김형진 (2016). 순회교사가 지각하는 1교 1순회 교육의 경험과 의미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정 (2015).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의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 백영주 (2020). 제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운영실태와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소라 (2009). 중도 중복장애학생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연구 :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도: 단국대학교.
- 이경태 (2015). 순회교사의 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대전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금하 (2008). 재택 순회교육에 대한 통합학교 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주 (2013). 유치원 일반학급 순회교육 지원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 이시현 (2013). 순회교사의 입장에서 본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정미, 임경원 (2022). 어느 특수교사의 시설 순회과견학급 적응기. 한국질적탐구학회, 8(2),

213-259.

- 이재현 (2013). 순회교육에 대한 교사의 경험적 의미 : 순회교육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 장열이 (2017). 경남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담당자 및 학생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진숙 (2021). 서울 지역 특수학급 미설치 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의 현황과 개선과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조수민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초임교사가 순회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차국일 (2009). 순회교사 지원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 한혜진 (2013). 충북지역 특수학급미설치교의 순회교육 실태와 순회교사와 통합교사의 협력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청북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Deman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tinerant Services: Focused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Lee, Heejung
Jung, Grace Eunyoung
Baek, Sangsu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itinerant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and toddl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urveying 27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Key findings indicate a preference for assigning less experienced teachers to itinerant roles, highlighting a critical need for comprehensive training, structured operational plans, and clear guidelines. The study also identifies the necessity for a support team to address issues of educational inconsistency and discontinuity. These insights underline the urgent need for policy and operational reform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tinerant education, operational survey, improvement plan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교사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신원우*

차정호**

요약

이 연구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용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로 인해 과학적 사고 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비인가 대안학교는 대체로 실험실과 과학 교구가 부족하며, 과학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가 부족하여 과학교육의 질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교사 순환제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지속적인 권고와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교육, 실태, 교사인식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화학교육 전공 석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존재한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용하고 학교 피해자들의 쉼터가 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이선희, 2014).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과과정이 존재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설문을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안학교는 기존의 획일화된 성적 지향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욕구와 자질을 중시하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면서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학교이다(이종태 2001). Dewey는 교육이 개인 스스로가 학습을 계속 불러일으킬 학습 유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배움이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형태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안학교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간디학교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자들이 기거하는 기숙형 학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들의 의식 변화와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인성이 중요시되면서 대안학교의 위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집단의 일원이 아닌 한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바라보며 대안학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발도로프학교, 영국의 서머힐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을 들 수 있다(장분도, 2009). 독일의 발도로프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과 교사 선발에서의 큰 자율성을 가지고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영국의 서머힐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공립형 대안학교로, 학력이 인정되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핵심 차이로 두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과학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며, 과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학교장의 설립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이 좌우되므로 과학교육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과학교육은 청소년기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시기에 적절한 과학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 진출 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도 과학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김상우, 2008; 이선숙, 2001; 이선희, 2014; 이자희, 2013; 지덕영, 2005)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이자희 등(2013)이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의 인식 중심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교육 관점에서 교육과정 실태가 조사된 바 있으나 학교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아니었다(김영주 등, 2010;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체 설문을 요청한 30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 응답에 응한 7개 학교이다. 각 학교의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대상 학교의 특징

학교	소재지	대상	특징 (학교홈페이지 참조)
A	경기도 광주시	초중고학생	- 자연친화교육, 독서중심학교
B	제주 제주시	초중등학생	- 자주적인 사회인 양성교육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C	인천광역시	초등학생	- 기숙사 없는 전일제 도시형 대안학교 -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바르게 살아갈 인재 양성
D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	- 지혜와 사랑을 겸비한 성찰하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목표 -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교육
E	경기도 수원시	초중등학생	- 자연친화교육 -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F	경기도 과천시	초등학생	- 자주적이고 통합적 교육 - 온전한 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G	대구광역시	중고등학생	- 기독교 중심 교육, 음악중점 교육

2. 연구 절차

30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전화를 돌렸는데 그 중 7곳은 폐교상태였고 나머지 23곳 중 실제로 설문에 응한 학교는 7개 학교 밖에 없었다. 2회에 걸쳐서 응답을 부탁했지만 이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물론 설문을 시작할 때 ‘학교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본인들의 학교가 ‘부실교육을 한다’라고 비취질 수 있는 부분이라 꺼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몇몇 학교들은 ‘본교에 과학수업이 없고 있더라도 학생들의 과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과학교육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설문에 응한 학교의 응답을 중심으로 아래의 표를 작성하였다.

3. 설문지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학교규모, 과학수업 현황, 과학교사 자격 및 수급, 과학수업의 어려운 점과 보람, 바라는 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표2>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영역	문항
학교 규모	1. 현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과학수업 현황	2. 과학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수인가요?
	3. 과학수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이론위주 ② 실험위주 ③ 이론과 실험혼용
	3-1. 3번 문항의 ② 혹은 ③에 답을 체크하셨다면 실험실이 있나요? 실험교구는 실험하기에 충분한가요? 실험예산을 따로 책정하나요? 3-2. 3번 문항에 ③을 체크하셨다면 이론과 실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학교사에 대해	4. 현재 과학선생님들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5. 과학교사의 수급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대안학교연맹사이트, 인터넷광고)
과학 수업의 어려움과 보람	6. 과학수업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7.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하신 과학 수업 중 가장 의미있었던 혹은 보람있었던 수업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바라는 점	8.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수업을 하기에 좋은 점 혹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9. 마지막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II. 연구 결과

1. 설문 결과

1) 학교 규모

학교별 학생 수는 20명부터 100까지 다양했다.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 연구 대상 학교의 학생 수

학교	학생 수
A	20
B	45
C	25
D	100
E	63
F	25
G	30

2) 과학 수업 현황

과학 수업은 일주일에 1-2차시로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따로 없는 경우(F학교)와 11차시를 운영하는 학교(D 학교)도 있었다. 또한 과학수업형태에 대해 5곳은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고, 2곳은 이론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7곳 모두 과학실험실은 없었고 별도의 실험예산이 편성되는 곳도 없었다.

<표4> 과학 수업 현황

항목	학교	내용
주당 과학 시수	A	2차시
	B	2차시
	C	1~3년 3~5차시 / 4~6학년 1~2차시
	D	11
	E	4학년 1.5차시 / 5학년 2차시 / 6학년 1차시
	F	없음
	G	1차시
과학 수업 방식	A	이론+실험
	B	이론+수업
	C	1~3학년: 활동중심, 4~6학년: 이론+활동
	D	이론
	E	이론+실험
	F	이론+활동
	G	이론
실험실 보유 여부	A	없음
	B	없음
	C	없음
	D	없음
	E	없음
	F	없음
	G	없음
실험 예산	A	없음
	B	보조금 사업으로 충당
	C	없음
	D	없음
	E	없음
	F	없음
	G	없음

3) 과학 담당 교사 현황

설문에 응한 비인가 대안학교 7곳 중 2곳만 과학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가르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5곳은 교사자격증이 없었다. 그리고 교사의 수급은 인터넷 광고나 구인구직 사이트(3곳)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맥(G학교)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표5> 과학 담당 교사 현황

항목	학교	내용
과학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A	X
	B	O
	C	X
	D	O
	E	X (지질학 전공자)
	F	X
	G	X
과학교사 수급 방법	A	구인구직 사이트, 대안학교 사이트
	B	무응답
	C	예전 근무자
	D	구인구직 사이트
	E	과학교사 없음
	F	무응답
	G	인맥, 구인구직 사이트

4) 과학수업 운영 관련

과학수업 시 어려운 점과 의미있었던 점에 대해 질의했는데 어려운 점은 기자재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3곳, 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2곳 등 다양하게 응답했고, 의미있었던 점에 대한 응답은 ‘과학실험을 통해서 실생활에 작게나마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또한 과학교육에 있어 비인가 대안학교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질문에 4곳이 ‘수업설계의 자율성’을 꼽았고, ‘다양한 수업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교(A학교)도 있었다. 그리고 ‘통합교과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의견(C학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표6> 과학 수업 운영 관련

항목	학교	내용
과학수업 시 어려운 점	A	기자재 부족, 심도있는 토론수업 불가
	B	기자재 부족, 교사수급, 교육과정 구성
	C	전문성 부족
	D	예산편성, 실험도구 및 재료구비의 한계
	E	이론 위주 수업, 흥미유발
	F	무응답
	G	이론 위주 수업, 흥미유발, 재정 부족, 전문성 부족
보람있는 수업 경험	A	- 진화론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진화학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경험 - 학교 주변이 생물 관찰하기에 적합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음
	B	- 자전거의 원리, 지구환경과 기후위기, 자전기 발전기 만들기 및 활용 등 자전거 하나로 출발해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고 생활의 변화로 가져온 수업
	C	- 폐종이로 종이벽돌을 만들어서 작은 구조물을 만들었던 대안 에너지 수업과 햇빛 온풍기 모형은 학생들이 만들고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교실에 설치했던 에너지 수업
	D	- 이론수업이 아닌 주제식 과학수업을 진행했을 때 (예)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는 이유)
	E	- 코로나시기 6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쉬 교육을 하면서 과학시간에는 기계가 정보를 습득하고 변환하는 알고리즘의 방식을 순서와 규칙, 암호, 익명성 등으로 나눠 진행
	F	무응답
	G	- 검정고시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거나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시킬 때 - 다양한 수업기법을 활용해보기 좋습니다
대안학교 과학수업의 장점	A	- 교과서에 없는 최신과학동향을 조사하고 발표하며 현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좋음
	B	- 과학 원리를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기자재나 예산의 부족은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 블록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교과들과 통합해서 다룰 수 있음
	D	- 수업설계의 자율성
	E	-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배운 것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 자연과학처럼 생태적인 것을 설명할 때 농사를 1~4학년 때까지 짓기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F	무응답
	G	- 일단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진도에 크게 얽매이지 않다 보니 학생들과 많은 대화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5)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을 위한 환경지원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가 5곳이나 되었다. 또 A학교는 ‘변화하는 미래과학동향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G학교는 교과과정 및 과학교육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눈길을 끌었다.

<표7>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항목	학교	내용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A	생태환경과 관련한 자료, 기자재 지원이나 IT & AI 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 필요
	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학수업을 위한 환경구성에 지원
	C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과 기자재 지원
	D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과학 교육과정 구성
	E	재정적 지원과 활동적 과학수업을 위한 수업시간 확보
	F	무응답
	G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교과과정 구성을 자문해줄 수 있는 인프라 필요

2. 설문응답을 통한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교육 운영실태와 예상되는 문제점

1) 이론중심교육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론수업에 집중되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 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학교가 과학실험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당연히 과학기자재의 경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생 수에서도 나타나지만 많게는 100명이고 적게는 20명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들을 위해 실험실을 만든다는 것은 학교장의 학교설립이념과 맥 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대안학교 특성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 이유 가 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투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실험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는 초등 대안학교가 유일하다. E, F학교는 초등 대안학교다. 특히 E학교의 경우 실험의 비중을 3/4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유일하게 실험의 중요도가 높은 학교라 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학교는 필요에 따라서 실험을 한다고 응답했다.

2) 교사자격증 소유자 현황

7개 학교 중 2개 학교만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과학을 가르쳤다. 보통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렇기에 교사로서의 대우와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인재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고 안 하고는 학교의 재정상태와 학교장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채용 방법

교사채용의 방식은 구인구직사이트나 대안학교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G학교의 경우다. 인맥을 통해 인원을 수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혹은 졸업생이나 휴학생을 교사나 간사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개인적인 이유, 즉 직장을 구했다거나 복학을 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 쉽게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4) 총제적인 문제

6번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성의 부족, 기자재의 부족, 교사 수급문제, 재정의 문제, 지나친 이론위주수업에 대한 자성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극히 예상이 가능한 답이다. 결국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5) 흥미위주로 빠질 수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교육

대안학교답게 과학수업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많이 맞춰져 있다. 사전거 프로젝트수업과 폐종이로 종이벽돌을 만든 대안에너지 수업, 햇빛 온풍기 모형을 만들고 교실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학을 학생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이론과의 연계성이 약하면 교육적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6) 더 나은 비인가 대안학교 과학수업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9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몇 가지로 추려보면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재정의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학생수업료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인가학교만큼의 넉넉한 재정은 어렵다. 그러다보니 재정의 우선배분은 학교장의 가치관과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대안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여행분야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두 번째로 기자재의 부족을 꼽는다. 이는 재정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부족을 꼽는다. A학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학교들은 바뀌는 과학기술의 동향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아직도 책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계속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안학교는 강의계획서를 본인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교사의 시간부족과 역량부족이 맞물릴 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는 완전 동떨어진 교육을 할 우려가 높아진다.

7) 무응답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0개 중에서 16개 학교는 응답을 꺼려했다. 그리고 7개 학교는 폐교상태였고, 나머지 7개 학교만이 응답에 참여했다. 무응답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폐쇄성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낮은 과학수업비중을 굳이 드러내서 학교이미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이름을 비공개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중 7개 학교는 폐교상황이었는데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인가학교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비인가 대안학교를 위한 과학교사순환제

실험전담 교사순환제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과학교사가 각 군, 구에 배치되어 순회하면서 실험수업 혹은 실험과 연계된 이론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교사자원이 없다면 은퇴

교사나 기간제교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본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 중에서 정교사자격증 소지 교사의 부재가 전문적 교과과정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과학적인 능력개발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학교사순환제를 통하여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학교사순환제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첫째로 실험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대안학교에서 실험을 생략을 하거나 단발적인 실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환제의 교사는 전문가로서 실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역량을 지님으로써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순환교사가 실험장비들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험실이라든지 기자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대안학교에서는 과학교과에 대한 교과과정을 직접 수립한다.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교과과정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때 과학교사순환제를 통해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순환교사를 통해 교과과정의 점검도 받고 조언들을 청취함으로써 더 나은 교과과정 수립이 가능해진다.

2) 교육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권고

과학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위의 과학교육의 중요성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기의 과학교육은 합리성과 논리성 그리고 창의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비인가 대안학교에게만 그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권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예컨대 1년에 한번 정도 지역교육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과학교육의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학교장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교육이 학생들의 사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작게나마 들어보았다. 아쉬운 점은 표본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었던 것은 현장의 교

사들은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타 기관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군, 구에는 산하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비인가 대안학교학생들도 그 기관에 속한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과학교육과 같은 교육컨텐츠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상우(2008).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과학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주, 차정호, 정철, 이정호 (2010). 대안학교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 실태 조사. 과학교육연구지, 34(2), 320-326.
- 김영주, 차정호, 정철, 이정호 (2011). 대안학교 교사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환경교육, 24(4), 51-61.
- 이선숙 (200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희 (2014). 대안교육 종사자들이 인식한 공교육 학업중단청소년의 대안교육 모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궤도를 이탈한 별들, 행복을 향한 방향키 찾기. 학교사회복지, 29, 613-638.
- 이자희(2013). 국내 대안학교의 과학교육 현황과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과정 및 운영사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자희, 유효숙, 김진희, 최경희(2013). 국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학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329-352.
- 이종태(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 장분도(2009).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덕영(2005).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실제 과학수업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Science Education in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Focused on Teacher's Perception

Shin, Wonwoo
Cha, Jeongh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science education in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s well as the perceptions of alternative school teachers.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play a crucial role in accommodating out-of-school youth and providing a refuge for victims, but face challenges in promoting scientific thinking skills due to their independent curriculum, which is not align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s guidelines. Through survey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science education and the perceptions of teachers in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nd proposes solutions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The findings show that these schools generally lack laboratories and science equipment, and there is a shortage of qualified science teachers, resulting in low quality science edu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rotating system of science teachers, as well as ongoing advic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research provides fundamental data that can help improve students' scientific thinking skills by finding practical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cience education in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Key words : alternative schools,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science education, status, teacher's perception

MZ세대의 신조어로 알아보는 촌락 활성화 방안

심민경*

이영아**

요약

본 연구는 2020년대 가장 큰 화두인 MZ세대 사이에서 촌락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들이 촌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Z세대가 기존의 청년층과 다르게 가지는 특징과 그 특징 속에서 파생된 촌락과 관련된 신조어, 신조어 유행에 따른 지역의 변화 사례를 분석했다. 음식과 여행을 주제로 한 신조어 분석 결과 MZ세대들이 촌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높아지는 관심도에 따라 '창녕군'과 '고흥군'을 예시로 변화한 촌락 지역의 긍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나아가 청년의 시각에서 촌락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지역 관광사업의 변화', '6차산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의 시선에서 촌락의 가치를 찾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촌락의 쇠퇴를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핵심어: MZ세대, 촌락, 귀촌, 로코노미, 할매니얼, 촌캉스, 오도이촌, 6차산업

*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20년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화두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밀레니엄 Z세대¹⁾(이하 MZ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요즘 MZ세대는~’으로 시작하는 기사 제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작성되고 있는 이유는 앞선 세대들과 달리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추구하는 특징으로 새로운 사회적 행보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MZ세대들이 코로나 유행 이후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촌락이다. 촌락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MZ세대는 촌(村)으로 간다. 대학생 농활·촌캉스 인기’, ‘MZ세대 힙한 여름 휴가법 촌캉스, 시골 먹거리 인기’, ‘귀농하는 MZ세대 역대 최대 왜?’ 등 MZ세대와 연결지어 작성한 기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진행한 귀촌·귀농 정책에도 촌락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청년들이 스스로 촌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촌락과 관련된 여러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촌락과 관련된 것들을 유행시키기 시작했고, 2010년 429,800명에서 2019년 202,408명까지 매년 청년층의 농가 인구가 감소하던 중 2020년에는 235,582명으로 작년 대비 30,000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²⁾

이처럼 청년층의 관심이 증대된 이 시점에 촌락에 관한 관심이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청년층의 시선에서 촌락의 가치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촌락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에 해당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촌락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들이 촌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사회상이나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조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순서를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촌락의 가치를 살펴보고, 촌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2)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 (2010 ~ 2021년)

첫째, 기존 청년층과 다른 MZ세대만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MZ세대가 가지는 특징 속에서 과생된 촌락 관련 신조어를 분석한다.

셋째, 신조어 유행에 따른 지역의 변화 사례를 분석한다.

II. MZ세대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기사와 동영상을 접하고, SNS와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신념과 주장으로 가치관을 형성한 MZ세대는 불편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며, 사회에서 ‘화이트 불편러3)’, ‘소피커4)’로 불렸다. MZ세대의 등장 초반에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행된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기성세대는 오히려 그들을 사회에 맞게 변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MZ세대는 오히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만 내는 화이트 불편러와 소피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며, 선한 변화를 이끄는 ‘선취력’을 보였다. 선취력은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되어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힘은 ‘가치소비5)와 같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작용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사이에서 ‘갓생(God+人生)살기’가 유행하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와 같이 개인을 위한 목표와 텀블러 사용기와 같이 사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취감이 높고 보람된 삶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MZ세대의 경우 개인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한다.

III. 촌락 관련 신조어

1. 음식

음식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에 속하며, 시대와 세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가

3) 사회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불의를 볼 때마다 정의롭게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

4)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를 거리낌 없이 말하는 행동

5) 자신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

도래하면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들은 나물보다 샐러드를 선호하는 등 간편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으며 서양 음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시 주요 소비층이었던 젊은 세대를 겨냥하여 외국산 음식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의 음식 재료를 사용하되 서양식으로 변형한 음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의 확산으로 MZ세대 사이에서 건강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개인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유행은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를 부흥시키며, ‘로코노미’, ‘할매니얼’ 등의 유행어를 만들었다.

1) 로코노미(loconomy)

로코노미란 지역을 의미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합성어로, 도심의 거대 상권이 아닌 동네에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생활 반경이 동네로 한정되면서 생활 반경 내의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로코노미의 유행으로 지역의 가게들은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며, 지역의 특성을 담아낸 개성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에서도 ‘고흥 유자민트티’, ‘이천 쌀콘’ 등 지역의 특산물과 협업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 확보와 동시에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할매니얼

할머니의 문화가 신선한 MZ세대들 사이에 과거 할머니의 문화를 따라 하는 할매니얼이 유행하고 있다. 할매니얼이란 할머니(할매)와 밀레니얼세대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젊은 세대에 스며든 옛날 감성을 의미한다. 할매니얼은 패션,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행하고 있으며, 그중 건강과 맛을 더한 ‘할매 입맛’, ‘할매 먹거리’로 알려진 할매니얼 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할매니얼 식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 여행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말한다. 여행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지와 관심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해외여행과 도시 여행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제적 이동의 제한과 국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여행의 대상지와 관심 대상이 국내와 촌락으로 바뀌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영화 ‘리틀포레스트’와 방송 프로그램 ‘삼시세끼’등 촌락 관련 미디어의 히트도 촌락 생활에 관심을 끌게 했다.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에게 여행 대상지와 관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촌락을 여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새로운 촌락여행 방식은 ‘촌캉스’, ‘오도이촌’, ‘논명·밭명’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신조어는 M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1) 촌캉스

촌캉스란 휴양을 위한 휴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바캉스’와 ‘촌(村)’이 합쳐진 신조어로, 시골에서 즐기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아궁이로 요리를 하며, 마당 옆 텃밭에서 직접 따온 채소로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은 촌캉스의 묘미로, 평소 도시 생활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며, 촌락만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MZ세대들은 촌캉스에 자신의 개성을 더하여 평소 도시에서 보기 드문 몸빼 바지, 고무신을 착용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등 다양하게 촌캉스를 즐기기도 한다.

2) 오도이촌

1970~80년대 도시로 이동한 청년 중 도시의 과밀화와 지방의 일자리 확대 등의 이유로 촌락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이 나타났고, 2000년대 들어서는 60대를 중심으로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촌락으로 내려가는 귀촌이 유행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5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2일은 촌락에서 머무는 ‘오도이촌’ 개념이 생겨났다.

도시를 떠나 시골 고유의 매력과 편안함을 즐기는 러스틱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캠핑용품이나 캠핑차 등을 이용하여 주말 동안 원하는 촌락 지역에서 단조롭고 소박한 일상을 보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도이촌의 목적은 편안함도 있지만 일명 갓생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는 주말농장을 활용하여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데도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2023년 10월에 tvN에서 방영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콩콩팥팥)’ 프로그램이 있다.

IV. 사례

1. 창녕군, ‘창녕 갈릭버거’

창녕군은 2012년 마늘반·양파반이 포함된 농업인대학을 설립하고, 창녕군의 특산품 마늘을 지리적 표시제 82호로 등록하는 등 지역의 특산품 및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2021년에는 ESG경영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협업으로 일반적인 버거에 창녕의 마늘을 더 해 전통적인 스타일을 연출한 할매니얼 스타일의 ‘창녕 갈릭버거’를 런칭했다. 이 버거는 맛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MZ세대를 겨냥했으며, 실제로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제품을 158만개 이상 판매하며 42톤에 달하는 창녕의 마늘이 사용됐다. 2022년에는 소비자의 재요청으로 1년 만에 재출시하였고,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달성하며 창녕 마늘을 이용한 버거는 큰 성과를 이뤘다.

창녕군은 기존 지역 축제로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식 보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용한 광고 제작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택하며,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MZ세대 사이에서 마늘 하면 창녕군을 떠올릴 정도로 지역과 특산물의 인지도가 상승했다. 로컬소싱(현지조달)의 성공은 2022년 조선비즈에서 주최한 ‘2022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물 부분 대상과 경상남도 주관 2022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어지며, 지역 홍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창녕군 마늘 홍보 방식의 성공은 남해군, 양구군 등 다른 지역의 홍보방식과 경영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창녕군과 같이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와 협업하거나 미디어에 드러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주요 소비층인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하여 지역의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 복지와 친환경을 선도하는 MZ사이에 비건 제품이 유행하면서 친환경 원료를 생산하는 촌락과 생산 기업의 협약은 상생을 끌어내고 있다.

2. 고흥군, ‘GO 흥 우리두리 감성캠핑’

전라남도 고흥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따뜻한 날씨로 국내 야영객들에게 캠핑지로 알려진 곳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캠핑이 유행하면서 고흥군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야영객을

위해 캠핑용품과 캠핑카를 대여해주는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을 계획하고, 2021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표1> 고흥군 여행 분포⁶⁾

기간	2019.01.01. ~2019.12.31.	2021.01.01 ~2021.12.31.	2021.11.01. ~2022.10.31.
네비게이션 검색 유형 분포 ⁷⁾ ‘캠핑’	3,986건	12,660건	13,625건
관광소비 분포 ⁸⁾ ‘캠핑장/펜션’	2,700,000원	3,489,000원	5,189,000원

<표1>은 코로나 확산 이전 해인 2019년도와 코로나 확산 이후인 2021년 그리고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 사업을 시작한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각 1년의 기간을 설정했으며, 기간 동안 네비게이션 검색 유형 분포에서 숙박유형 중 ‘캠핑’ 검색 건수와 관광소비 분포에서 숙박업 중 ‘캠핑장/펜션’이 차지한 소비량을 정리한 표이다.

<표1>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인 2019년도에 고흥군 내의 캠핑 검색 건수가 3,986건인 것에 비해 코로나 확산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2021년 12,660건으로 약 215% 증가하였으며,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 사업을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2021년도에 비해 약 10%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 이후 캠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캠핑 장소로 적합한 촌락 지역을 탐색하여 방문하는 여행객도 함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네비게이션 검색 건수에 비해 ‘캠핑장/펜션’ 관광 소비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캠핑장의 경우 펜션보다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캠핑’검색 건수와 함께 ‘캠핑장/펜션’ 소비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 사업의 대상은 모든 연령층이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적어 캠핑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층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었다. 또한, SNS의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의 특징을 이용하여 사업 명칭에 ‘감성’이라는 문구를 더하고, 감성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물품을 대여해주면서 젊은 관광객 유치에 비중을 두었다.

6)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 현황’

7)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해당지역 유형별 목적지 검색량 분포

8) 신용카드 데이터 기반 해당지역 방문자의 관광소비 유형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그림1> 고흥군 성·연령별 방문자 수 그래프9)

<그림1>은 성·연령별 방문자 수 그래프를 기간별로 정리한 것으로, MZ세대에 해당하는 20~29세, 30~39세의 방문자 수를 통해 ‘GO흥 우리두리 감성캠핑’ 사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는 20대 남성 358,078명, 여성 247,680명과 30대 남성 450,481명, 여성 303,834명으로 총 1,360,073명의 MZ세대가 고흥군을 방문했다. 2021년에는 20대 남성 425,348명, 여성 293,992명과 30대 남성 500,041명, 여성 325,633명으로 총 1,545,014명이 방문하며, 2019년보다 184,941명의 MZ세대 방문객이 증가했다. 그리고 ‘GO흥

9)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별 AI 관광분석’

우리두리 감성캠핑' 사업을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대 남성 439,711명, 여성 307,878명과 30대 남성 521,724명, 여성 338,378명으로 총 1,607,691명이 방문하여 사업이 시작된 이후 MZ세대 관광객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방문한 MZ세대 관광객이 모두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의 영향을 받아 방문했다고 볼 수 없지만, <표2>와 함께 비교하였을 때 'GO홍 우리두리 감성캠핑'사업도 MZ세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2> 전라남도 고흥군 : 업종별 지출액

(단위:천원)

기간	관광지출액	숙박업 지출액	캠핑장/펜션 지출액
2020.11.01.~2021.10.31.	11,324,655	1,020,724	3,324
2021.11.01.~2022.10.31.	13,479,507	1,363,666	5,365

<표2>은 비씨카드와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데이터로 카드 발급자 카드 수령 주소지가 분석 대상 지자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낸 업종별 지출액이다. 관광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고흥군의 관광 소비 합계가 18.7%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V. 맺음말

1. 지역경제의 변화

1) 지역 관광사업의 변화

코로나 확산 이전 촌락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농촌체험과 지역 축제 위주의 단체 관광 정책을 펼치며 장년층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여행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과 특정 연령대 관광객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층에게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축제 개최와 단체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촌락에서는 자연 관광 위주의 개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지닌 MZ세대들도 촌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촌락에서 논명·발명, 캠프닉, 촌캉스 등 자연을 이

용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다. 고흥군의 ‘GO흥 우리두리 감성캠핑’처럼 각 지자체에서도 여행의 트렌드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여행 정책을 선보이며,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정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변화된 여행 트렌드와 이를 반영한 지자체의 노력은 촌락 지역의 긍정적 여론 확산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2022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촌 관광에 대한 긍정 여론을 분석한 결과 “농촌 관광에 대한 긍정여론(%): (2019) 50 → (2020) 20 → (2021) 55 → (2022) 80으로 나타났다.”(박경호, 뉴스와이어)고 한다.

관광사업의 변화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촌락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관광사업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6차 산업의 활성화

촌락은 1차 산업의 중심지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業)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WTO와 농업의 기업화로 인해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국내 촌락의 가치와 함께 곡물 자급률¹⁰⁾을 하락시켰다.

이처럼 경쟁력이 하락한 촌락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¹¹⁾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코로나 확산 이후 국내 여행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저’가 유행하면서 영양가 있는 먹거리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팜핑’, ‘팜파티’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6차산업은 1차산업만 가능하다는 촌락의 인식을 개선해주며, 국내 촌락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있다. 6차 산업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표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317,409가구로 전년 대비 18,052가구 증가(6.0%↑)¹²⁾했으며, 연령대별 구성비에서 20대가 2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모든 귀촌·귀농 가구의 이동 원인이 6차 산업에 해당하진 않지만, ‘팜핑’, ‘팜파티’처럼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끈 6차산업은 젊은 관광객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증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10) 각종 곡물의 국내 소비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11)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12)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 촌락의 미래를 위한 제언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은 국제사회부터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촌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MZ세대 사이에 유행으로 번진 촌락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촌락의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촌락을 다시 활성화하려다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은 소멸하는 촌락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에만 집중하던 촌락에 끼어들 자리가 없던 것이었다. 기존의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귀농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이 정책들은 청년을 중심에 두기보다 농업을 중심에 두고 평소 농업에 뜻이 있었던 청년들만 모집한 셈이었다.

촌락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촌락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며, 촌락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6차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촌락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6차산업 외에도 촌락을 활성화할 방안은 다양하다. MZ세대의 시선에서 촌락의 다양한 가치를 찾아보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촌락도 변화한다면 6차 산업과 같이 촌락을 배경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이는 촌락의 인구 유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고광열 (2021). MZ세대트렌드 코드, 밀리언서재
- 김남일, 최순 (1998). 인구이동과 지역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 한국인구학, 21(1), 42-79.
- 농림축산식품부 (2022). 귀촌·귀농 실태조사, <https://www.mafra.go.kr>.
- 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촌에 대한 인식, <https://www.krei.re.kr/krei/index.do>.
- 뉴스와이어 (2022.08.01.). 농정원, 코로나19전후‘농촌관광’ 인식 변화 분석결과 발표.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위즈덤하우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위즈덤하우스
- 문화일보 (2022.07.19.). 호캉스? 저희는 촌으로 갈게요...MZ세대가 여름휴가 보내는 힙한 방법.
- 세계일보 (2022.09.22.) 식음료업계, 전통 먹거리부터 로컬 식재료까지 신도블어.
- 아시아경제 (2022.09.17.). 흑임자 등 전통 식재료로 MZ세대 공략...‘할매니얼’식음료 인기.
- 통계청 (2022).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 <https://kosis.kr>.
- 통계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2016).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공누리 제2유형.
-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년 고흥군 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 (검색: 2022-11-21).

Strategies for Activating Rural Revival through Neologisms of the MZ Generation

Sim, Mingyeong

Lee, Young-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y the trend of rural revival is trending among the MZ generation, the most prominent topic of the 2020s, and to seek ways to cultivate interest in rural revival among youth.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compared to previous youth cohorts, examined neologisms and their popularity related to rural revival, and studied cases of regional transformation resulting from these trends. The analysis of neologisms focused on food and travel revealed insights into why the MZ generation has become interested in rural revival. Additionally, positive examples of rural areas such as Changnyeong County and Goheung County adapting to changing trends were identified in response to increasing youth interest.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strategies to activate rural revival from the perspective of youth, suggesting changes in local tourism initiatives and promoting the 6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dentifying the value of rural reviv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who will lead society forward, and devising activation strategies to prevent the decline of rural revival

Key words : MZ generation, rural revival, return to rural areas, rocoeconomy, halmaenial, rural staycation, Odoochon, 6th industrial revolution

고등학교 안국지리 교과서의 내러티브 텍스트 유형과 핵심개념 간 관계: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단원을 중심으로

장현아*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핵심개념과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의 관계를 통해 학습 자료로서 내러티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을 선정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핵심개념과 교과서에서 실제 제시된 핵심개념간의 관계,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과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론에서 제시된 개념과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은 모두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자료가 핵심개념의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장소의 사례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단독의 개념설명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핵심어 : 내러티브 텍스트, 내러티브 자료, 설명식 서술방식, 핵심개념, 설명개념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 전공 석사

I. 서론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습자의 자율성 신장',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 등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총론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교육부, 2015). 학생들의 이해를 위하여 단순히 핵심개념을 확인하고 그 뜻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고려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는데, 그러한 변화 중 하나가 내러티브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독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사고에 맞게 친절해야 하고, 사용하는 자료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 텍스트는 유의미하다. 지식을 평면적이고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맥락적으로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이야기는 독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적 이해와 상상력을 자극하여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텍스트를 활용하여 개념학습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제시된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텍스트나 지식을 특정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개념을 학습하는 데에 내러티브 텍스트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개념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내러티브 텍스트 사용과 내러티브 서술양식을 채용했을 때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설명식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¹⁾이 지적됨에 따라 교과서 구성에 내러티브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다양한 교과에서 나타났다(강현석, 2007). 교수학적 변화의 산물로 내러티브서술방식을 교과서에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교과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철기, 2011). '내러티브형' 교과서는 보다 질 좋고,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의 모습을 구현하며 내러티브 텍스트가 갖는 '지리적 지식에 대한 기억과 이해,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1) 지식관이나 학습과정, 탐구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다(조철기, 2011). 내러티브 서술방식이 설명식 교과서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존재했으나, 주태연(2008)의 연구 결과 내러티브 서술양식이 내용지식 향상에 있어 설명식 서술양식보다 효과적이며, 과목의 선호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일반지식 향상에 있어서도 설명식 서술양식을 사용했을 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러티브 서술방식과 내러티브 텍스트가 갖는 학습효과가 뚜렷함에도, 현행 교과서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의 지리교과서²⁾처럼 교과서 전체가 내러티브 형식으로 서술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 보조적 자료로만 사용되었다.

내러티브 교과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 효과성이나 내러티브 텍스트 그 자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조자료로서 내러티브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 텍스트와 개념들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러티브 자료들의 종류와 각각의 내러티브 자료들을 통해 학습되는 개념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개념들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내러티브 자료의 사용 의미와 교과서 내 내러티브 자료가 교사와 예비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교과서 내 내러티브 텍스트와 핵심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 내에서 사용된 내러티브 텍스트의 종류를 확인하고, 내러티브 텍스트들이 설명하는 개념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내러티브 텍스트로 설명되는 개념들이 총론에서 강조하는 지리교과의 핵심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내러티브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로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별로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중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세 출판사(B사, C사, M사)를 선정하였으며, 여러 단원 중 '4.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단원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단원도입, 주제학습(동기, 보충, 심화, 탐구, 사례), 단원 마무리'로 구분하였다.

2) Heinemann Geography: A Narrative approach

내러티브 텍스트는 저자 또는 화자가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텍스트는 단순 설명식을 제외한 '장편소설, 단편소설, 영화, 텔레비전 쇼, 신화, 일화, 만화, 회화, 광고, 수필, 전기, 뉴스기사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다. 교과서에서도 본문의 '개념설명'식 서술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내러티브 텍스트들이 사용되었다. 이후 이루어질 분석에서는 인용된 내러티브 텍스트와 저자에 의해 재현된 내러티브 텍스트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손정우, 2013), 출처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형식을 띄는 경우 '저자에 의한'으로 표시하였다. 내러티브 텍스트의 분석은 사용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유형(진술목적)'의 틀을 설정하였다. 교과서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내러티브 텍스트가 사용되기보다 보조적인 자료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내러티브 자료라고 통칭하여 서술했다.

III.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단원의 핵심개념

1.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핵심개념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말한다. 지리 교과서의 계통지리영역은 크게 자연과학적 학문 배경을 지닌 '자연지리 영역'과 사회과학적 학문 배경을 가진 '인문지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으로부터 나온 두 영역의 개념들은 추상성에 있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대체로 자연지리적 개념은 구체적 개념으로, 인문지리적 개념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된다(이경한, 2011). 연구에서 선정한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단원은 인문지리적 영역에 속하며 단원의 핵심개념 또한 '도시체계, 대도시권, 접근성'등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브루너(Bruner, 1960)는 교육과정에서 기본개념 또는 핵심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했는데, 그가 주장하는 핵심개념은 복잡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주요개념에서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개념은 많은 주제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높은 전이력을 가지며 학생들이 교과서의 틀을 학습하기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교과별·주제별로 핵심개념의 선정에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어 학자별로 선정하는 핵심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개념과 교과서별로 강조된 개념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를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역과 내용요소는 <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 핵심개념의 경우 '교과서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단원에서는'촌락,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 대도시권, 도시재개발, 지역개발'의 여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표1>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	내용요소	핵심개념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 도시 계획과 재개발 • 지역 개발과 공간불평등 	촌락, 도시내부구조, 도시재개발,	도시체계, 대도시권, 지역개발

검·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국정교과서와는 다르게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작된 교과서를 말한다(박창언, 2020).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별로 내부 구성과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선정된 세 종류의 교과서 모두가 가장 유사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섯 가지 '촌락,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 대도시권, 도시재개발, 지역개발'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지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검·인정교과서라는 특징 때문에 각 교과서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 서식(설명식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본문'에서 개념을 확인하기로 했다. 3종 모두 본문 내 다른 글씨체로 굵게 표시하여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추출하였다.

역으로 분산된다. 이처럼 도시 내부의 기능이 분리되어 상업
주거 지역 등이 형성되는 것을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 한다.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은 *접근성과 *지대이다. 일
| 높을수록 토지 수요가 많아 지대도 높아진다. 따라서 도심에
접근성과 지대가 낮아지며, 도심에서 먼 지역이라도 교통의 발달
으로 지대가 높다. 도시 내에서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가 발
능력에 따라 기능이 분화된다.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근성이 높은 지역에 모여드는 집적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대 지
적한 환경과 넓은 토지가 필요한 주거 및 공업 기능은 도시 외
: 이심 현상이 나타난다.

(B 사 교과서)

심 업무 기능이 집중된 **중심 업무 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심에 있던 주택이 중간 지역이나 주변 지역 등으로 이동함
도심에서는 주간 인구가 급증하고, 야간에는 도심의 *상주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발
이나 부산의 중앙동 등이 도심에 해당한다.



부도심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과 주
교통의 결절점에 도심의 기능을 일부 나누
성된다.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이 분산되어
관 등의 상업·업무 기능이 발달한다. 서울
포 등과 부산의 동래, 해운대 등이 대표적

<C 사 교과서>

이 지역의 중심지인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규모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주 체계**를 형성한다.

이와 주변 촌락은 정주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
행정 기관, 금융 기관, 상업 시설 등이 모여 있는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반면, 촌락은 각종 농수
공급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촌락이 지닌 여유로움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교
시와 촌락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도시와 촌
을 위해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M 사 교과서>

개념은 포괄 정도에 따라 상위개념, 동위개념, 하위개념으로 구분된다. 상위개념은 개념들의 위계 관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매우 포괄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하위개념은 낮은 위치에 있는 더 한정된 현상을 설명한다. <표 2>와 총론의 개념을 비교한 결과 개념의 포괄성 측면에서,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은 총론이 제시한 핵심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거나 그 하위개념들이 핵심개념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개념들은 총론의 핵심개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B사 교과서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개념 중 '도시내부구조'를 제외한 모든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제외된 개념의 경우 '도시내부지역분화'로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었다(성종, 2018). M 사교과서에서 강조된 개념에도 '도시체계'를 제외하고는 총론이 제시한 핵심개념의 대부분이

강조되었으며, ‘도시내부구조, 도시개발’은 그와 유사한 ‘도시내부의 지역분화, 도시재개발·도심재개발’로 제시되었다(박철웅, 2019). C사교과서의 경우 두 교과서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B사나 M사에 비해 교과서 내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는 개념의 수가 적었으며,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개념 중 모든 개념이 정확한 단어로 일치되지 않았다(신정엽, 2018).

<표2> 교과서별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교과서 중단원	B사 교과서	C사 교과서	M사 교과서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 배산임수, 이촌향도, 인 구고령화, 노동력부족, 원예농 업, 낙농업, 목축업, 여가공간, 체험활동, 전통문화 보전, 상 호보완적 관계, 도농통합시 • 도시화, 위성도시, 도시체계, 중주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산임수, 집촌, 동족촌락, 정주 • 교외화 현상, 도농통합시 • 중심지, 중주도시화, 저차중 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 도시, 배산임수, 역원, 병영촌, 농촌, 어촌, 산지촌, 집촌, 산촌, 이촌향도 • 정주체계, 중심지, 도농통합 시, 중주도시화, 혁신도시, 중주도시생활권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내부의 지역분화, 접근 성, 지대, 집집현상, 이심현 상, 도심, 인구공동화, 부도 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 발제한구역 • 대도시권, 신도시, 시설재배, 겸업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 접근성, 집집현상, 이심 현상 • 중심업무지구, 상주인구, 인구공동화현상, 교통의 결절 점, 개발제한구역, 배후지 • 확장, 시가지확장, 다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부의 지역분화, 접근 성, 지대, 집집현상, 이심현 상, 도심, 인구공동화, 부도 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 발제한구역 • 교외화, 위성도시, 대도시권, 겸업농가
3. 도시계획과 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 도시재개발, 도심재개발, 주 택재개발,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철 거재 개발, 보전재개발, 수 복재개발,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도시재개발, 도심재개발, 산 업지역 재개발, 주거지재개 발사업, 철거재개발, 보존재 개발, 수복재개발 •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4.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하향식개발, 상향 식개발, 성장거점개발 • 수도권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적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급효과, 역류효과, 성장거 점개발, 균형개발, 성장거점 개발방식, 지방분권, 균형발 전정책 • 혁신도시, 기업도시, 님비현 상, 필피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하향식개발, 상향 식개발,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 균형발전, 공간불 평등, 환경불평등 •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속가 능한발전, 슬로시티
제외	도시내부구조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 (유사), 도시개발(유사)

2. 내러티브 자료와 자료의 설명개념

교과서별로 사용되는 내러티브 자료는 유형과 진술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유형의 경우 '저자에 의한: 장소, 저자에 의한: 질문, 저자에 의한: 대화체, 생각열기질문, 신문기사, 정책자료, 문학, 비문학, 뉴스, 찬반토론'으로 구분하였으며, 진술목적은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동기(유발), 사례, 탐구, 보충'으로 구분하였다.

<표3> B사: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과 개념

교과서 중단원	B사 교과서	개념
단원도입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 저자에 의한: 장소(동기)	촌락의 변화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촌락의 형태·기능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촌락의 변화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 KBS뉴스(동기)	지역분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내부구조변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내부구조변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내부구조
	• 저자에 의한: 질문(사례)	대도시 과밀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대도시주변지역
3. 도시계획과 재개발	• 저자에 의한: 장소(동기)	도시계획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도시계획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계획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젠트리피케이션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재개발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재생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지역갈등
	• 저자에 의한: 장소(보충)	도시재생
	• 저자에 의한: 장소(보충)	도시재생
	• 저자에 의한: 장소(보충)	도시재생
4. 지역개발과 공간불평등	• 저자에 의한: 장소(보충)	공간(환경)불평등
	• 신문기사(보충)	공간(환경)불평등
단원마무리	• 저자에 의한: 장소	관광자원

B사 교과서의 경우 4가지 유형의 내러티브 자료를 22번 사용하였으며 그 중 '저자에 의한: 장소'유형이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탐구를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

았다. 본문의 전반에 걸쳐 사용된 ‘저자에 의한: 장소’ 유형은 서술식의 본문에서 개념을 설명한 후, 개념이 설명된 문장의 끝에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자료1] ‘저자에 의한: 장소’ 내러티브-유형 사례

1 토고미 마을의 6차 산업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 마을은 친환경 오리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인 주민 주도형 농촌 마을이다. 1차 산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가공을 통해 2차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여기에 토고미 자연 학교(농촌 관광), 마을 공동 민박 운영,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3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마을 농산물의 상표 가치를 더욱 높였다. 토고미 마을은 6차 산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한다.



출처: 비상 한국지리 교과서

[자료 1]은 ‘저자에 의한: 장소’ 유형으로, 본문에서 제시된 “최근 2차·3차 산업이 증가되었다.”라는 서술에서 나타나는 ‘촌락의 기능변화’ 개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한 보충 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이 유형은 B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주로 사용되었는데, 각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표4> C사: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과 개념

교과서 중단원	C사 교과서	개념
단원도입	• 저자에 의한: 장소	도시화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 생각열기 질문(동기) • 저자의 의한: 장소(탐구)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 저자에 의한: 장소(보충)	슬로시티 촌락의 변화 촌락의 기능 관광도시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 생각열기 질문(동기) • 비문학: 안광복 「지리시간에 철학읽기」(사례) • 신문기사(탐구)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 문학: 박완서 「엄마의 말뚝」, 공지영 「부활 무렵」(보충)	교외화 지대, 접근성 중심지, 배후지 대도시권 도시화
3. 도시계획과 재개발	• 생각열기 질문(동기)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 신문기사(탐구)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계획, 재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철거재개발 마을재생

4. 지역개발과 공간불평등	• 생각열기 질문(동기)	지역개발
	• 정책자료(사례)	국토 개발 계획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국토 개발 사업
	• 신문기사(사례)	혁신도시
	• 신문기사(사례)	지역갈등
	• 신문기사(탐구)	지역갈등
	• 찬반토론(탐구)	지역갈등
단원마무리		

C사 교과서의 경우 7가지 유형의 내러티브 자료를 23번 사용하여, 세 교과서중 가장 다양하게 내러티브 자료를 제시했다. B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절반정도가 '저자에 의한: 장소' 유형이었으나, '신문기사, 생각열기질문'이 각 5건, 4건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교과서에서 사용되지 않은 유형인 '문학, 비문학'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탐구와 사례를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각 8건이었다.

<표5> M사: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과 개념

교과서 중단원	M사 교과서	개념
단원도입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 생각열기 질문(동기)	촌락경관
	• 신문기사(사례)	귀농, 귀촌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촌락의 변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촌락의 변화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 생각열기 질문(동기)	도시내부구조
	• 신문기사(탐구)	도시내부구조분화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도심공동화
3. 도계획과 재개발	• 생각열기 질문(동기)	도시계획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경관변화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도시재개발
4. 지역개발과 공간불평등	• 저자에 의한: 장소(탐구)	철거재개발
	• 생각열기 질문(동기)	공간불평등
단원마무리	• 저자에 의한: 대화체(탐구)	지역갈등
	•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	지역마케팅

M사의 경우 4가지 유형의 내러티브 자료를 15번 사용하여 다른 두 출판사에 비해 적은 사용을 보였다. 사용된 유형 중 절반이 ‘저자에 의한: 장소’이며, 대부분이 탐구를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자료 2] ‘비문학’ 내러티브 유형 사례

사례 더하기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큰 도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지하철역은 나침반 구실을 한다. 지하철역은 항상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철역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건물들의 높이를 살펴보면 된다. 지하철역 근처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역에서 멀어지면 건물들은 슬금슬금 낮아진다. 그러다가 다른 역 근처에 오면 다시 커다란 빌딩들이 나타난다. 역에서 역으로 건물들은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는 셈이다. 그러나 높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으면 지하철역도 나오기 마련이다. 이제 간단한 질문을 던져 보겠다. 왜 지하철역 근처에는 빌딩들이 많을까? 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다. 땅값이 비싼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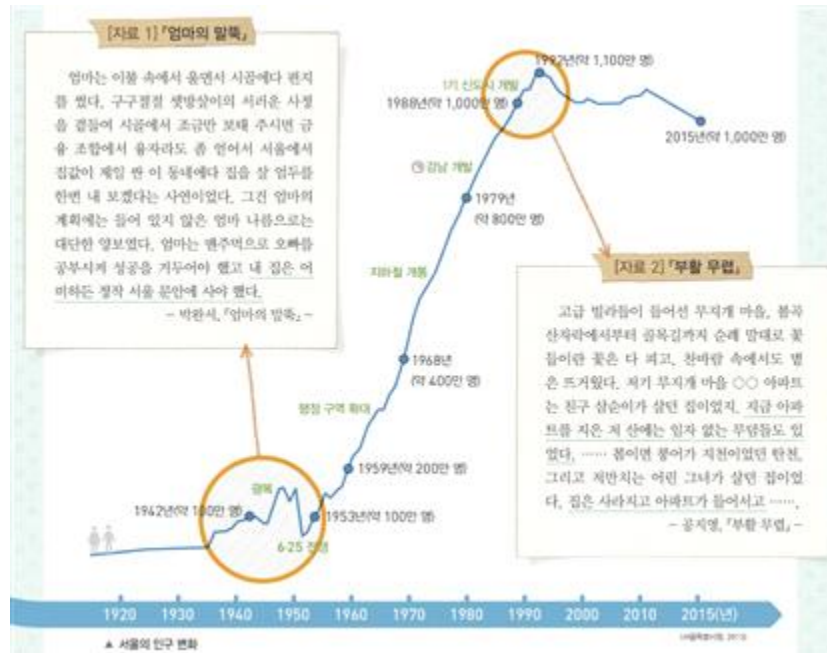
— 안광복, 『지리 시간에 철학하기』 —

▼ 서울 황십리 뉴타운 지하철 노선 연장 등으로 역세권이 발달하고 있다.



출처: 천재교육 한국지리 교과서

[자료 3] ‘문학’ 내러티브 유형 사례



출처: 천재교육 한국지리 교과서

[자료 2], [자료 3]은 각각 비문학과 문학이 내러티브자료의 형태로 사용된 사례이다. 문학은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서술하거나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사실을 보여준다. 비문학의 경우는 한 가지 지리적 주제에 대해 교과서보다 다양한 방식의 설명과 사례, 비유 등을 들어 이야기한다. 두 방식 모두, 다른 내러티브 자료들에 비해 화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는 이야기 속에서 '지리'만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많은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교과서에서 많은 양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비문학'의 경우 또한 한 가지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설명식에 비해 많고, 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습자료인 교과서의 자료로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이 어렵다. 학습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교과서의 문학이나 비문학이 자료로서 사용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4] '신문기사' 내러티브유형 사례

자료 3 서울특별시 도심의 학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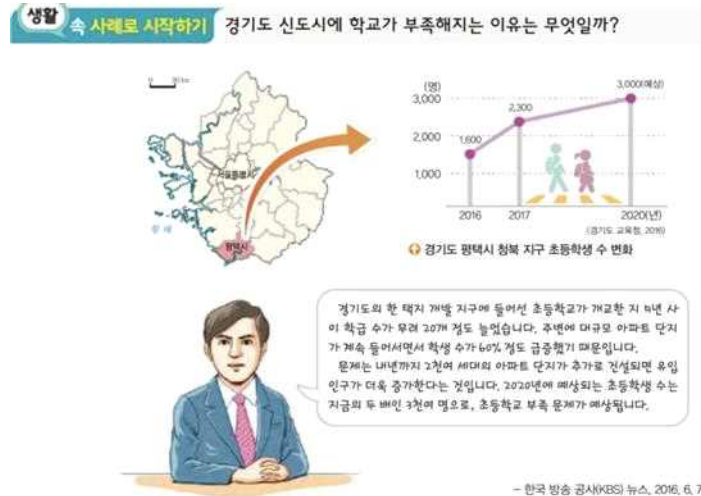
역사가 오래된 서울의 학교들이 도심을 떠나고 있다. 도심의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거주 인구가 대폭 줄면서 입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강남 개발 정책에 따라 학교들이 이전되었던 197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학교들이 학생을 찾아 이주하고 있다.

최근 학교 이전 계획을 발표한 중구의 ○○여고 교감은 “10여년 전만 해도 신입생 수가 300명을 넘었지만, 올해는 2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학교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14. 04. 08. -

출처: 미래엔 한국지리 교과서

[자료 5] ‘뉴스’ 내러티브유형 사례



출처: 미래엔 한국지리 교과서

[자료 4]는 신문기사, [자료 5]는 뉴스기사가 내러티브 자료로 사용된 사례이다. 둘 모두 도시내부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로 설명한다. 신문기사나 뉴스가 인용될 경우 전체가 직접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이 저자에 의해 편집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자료들이 부수적으로 추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3, 4, 5>를 통해 정리한 내러티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자료는 동기유발을 위해 도입부에서 사용되거나, 본문에 설명된 개념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내러티브 자료로 단독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내러티브 자료는 주로 탐구활동에서 사용되었으며, 개념에 대한 장소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저자에 의해 사례가 재구성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V.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 설명개념의 관계

각 교과서는 단원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본문에 굵은 표시로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6>은 교과서에서 사용된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과 핵심개념이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표 2, 3, 4, 5>를 병렬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단위별 핵심개념이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굵은 글씨체로하고,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이 총론이 제시한 핵심개념과 일치하는 경우 밑줄로 표시하였다.

b>

<표6> B사: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

단위	단위별 핵심개념	내러티브 자료의 설명개념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촌락, 배산임수, 이촌향도, 인구고령화, 노동력부족, 원예농업, 낙농업, 목축업, 여가공간, 체험활동, 전통문화 보전, 상호보완적 관계, 도농통합시도시화, 위성도시, 도시체계, 중주도시화	촌락의 변화, 촌락의 형태·기능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도시내부의 지역분화, 접근성, 지대, 집심현상, 이심현상, 도심, 인구공동화,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도시권, 신도시, 시설재배, 겸업농가	지역분화, 도시내부구조 변화, 도시내부구조, 대도시 과밀화
3. 도시계획과 재개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도시재생	도시계획,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 도시재생, 지역갈등
4.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	지역개발, 하향식개발, 상향식개발, 성장거점개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적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불평등	공간·환경 불평등

<표7> C사: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

단위	단위별 핵심개념	내러티브 자료의 설명개념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배산임수, 집촌, 동족촌락, 정주교외화현상, 도농통합시중심지, 중주도시화, 저차중심지	슬로시티, 촌락의 변화, 촌락의 기능, 관광도시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지대, 접근성, 집심현상, 이심현상 중심업무지구, 상주인구, 인구공동화 현상, 교통의 결절점, 개발제한구역, 배후지확장 , 시가지확장, 다핵화	교외화, 지대, 접근성, 중심지, 배후지, 대도시권 , 도시화
3. 도시계획과 재개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철거재개발,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도시재생	도시계획, 재개발 , 마을공동체, 철거재개발, 마을재생
4.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	파급효과, 역류효과, 성장거점개발, 균형개발, 성장거점개발방식,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혁신도시, 기업도시, 님비현상, 펌피현상	지역개발 , 국토개발계획, 국토개발사업, 혁신도시, 지역갈등

<표8> M사: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

단원	단원별 핵심개념	내러티브 자료의 설명 개념
1.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촌락 , 도시, 배산임수, 역원, 병영촌, 농촌, 어촌, 산지촌, 집촌, 산촌, 이촌향도 정주체계, 중심지, 도농통합시, 종주도시화, 혁신도시, 중추도시생활권	촌락경관 , 귀농·귀촌, 촌락의 변화
2.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도시 내부의 지역분화 , 접근성, 지대, 집심현상, 이심현상, 도심, 인구공동화 ,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교외화, 위성도시, 대도시권, 겸업농가	도시내부구조 , 도시내부구조분화 , 도심공동화
3. 도시계획과 재개발	도시계획 , 유비쿼터스도시, 도시재개발 , 도심재개발 , 산업지역 재개발, 주거지재개발사업, 철거재개발 , 보존재개발, 수복재개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도시계획 , 경관변화, 도시재개발 , 철거재개발
4.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	지역개발, 하향식개발, 상향식개발,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 균형발전, 공간불평등 , 환경불평등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속가능한발전, 슬로시티	공간불평등 , 지역갈등, 지역마케팅

내러티브 자료를 통해 설명되는 개념은 세 교과서 모두 각각의 교과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개념들과 연관이 있다. 개념의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 상위개념이나 하위개념이 설명에 사용되었다. 이는 내러티브 자료가 보충이나 심화의 보조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징적으로 3.도시계획과 재개발의 경우 ‘도시계획, 도시재개발’의 두 개념이 세 교과서 모두에서 내러티브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되었다. 이 개념들은 해당 단원명인 ‘도시 계획과 재개발’에서 강조되듯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 공간상에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난이도가 높다. 이경한(2011)에 따르면,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데에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러티브 자료는 설명주체와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즉,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내러티브 자료를 활용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자에 의한: 장소(사례)’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이해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서의 구성에 있어 단순한 개념 확인과 암기가 아닌,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고려하는 방식이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로 내러티브 텍스트의 활용이 강조되었다. 내러티브 텍스트를 활용한 개념학습을 하는 경우 학생은 결과적 지식의 수용이 아닌 특정 맥락 속에서 지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깊이 있는 개념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설명식 서술방식이 중심이 되며, 내러티브 텍스트는 보조자료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보조자료로서 사용된 내러티브 자료들의 유형과 그 자료들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핵심개념과 교과서별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개념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개념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총론이 제시한 개념의 상위개념이나 하위개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즉,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과 목적의 분석 결과, 교과서에서 사용된 내러티브 자료의 유형은 10가지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저자에 의한: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내러티브 자료가 주로 탐구활동에서의 장소사태 설명을 위해 제시된 점, 단독의 개념을 설명한 경우는 없다는 점은 교과서 내 내러티브 텍스트 사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핵심개념과 내러티브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러티브 자료는 보충·설명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판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개념들과 일치하거나 연관이 있으며, 특히 세 교과서 모두에서 강조된 '도시계획, 도시재개발'의 개념이 갖는 특징을 생각했을 때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일수록 내러티브 자료를 통해 설명되었을 때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의 『Heinemann Geography: A Narrative approach』라는 지리교과서는 본문 전체가 다양한 유형의 내러티브(대화, 이메일, 야외학습, 여행기, 자전적 글쓰기, 미스터리한 여행기, 뉴스, 일기 등)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혹은 가공된 화자에 의해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학생들은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다음 페이지의 탐구활동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난다(조철기, 2013). 이는 내러티브

텍스트의 활용이 개념을 설명하는 보조자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설명식 서술방식의 본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한국 지리 교과서 내에서 내러티브 자료의 역할은 보조자료로서 본문의 설명식 서술방식의 내용을 보충하고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개념들과, 그와 연계된 교과서에서 강조된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보조자료로서의 역할이 충실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내러티브 자료의 사용영역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자료의 사용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에 기초해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계획 및 교과서를 재조직화, 수정, 보완, 통합하는 등의 활동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사용될 수 있다(성열관, 2009). 교육과정 재구성은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는 개념을 설명할 때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대로 가르치기보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자료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구상하는 단계에서 교과서 내 내러티브 자료의 사용현황에 대해 파악한다면, 학습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할 때 내러티브 자료의 적극적 사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수업에서 내러티브 자료들의 적극적 활용은 학생들의 흥미유발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의 쉬운 이해, 풍부한 맥락적 수업의 제공으로 학업성취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현석 외 (2007),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서 진술 방식의 탐구, 초등교육연구.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박창언 (2020). 국정-검정0인정 교과서가 뭐가요?. 행복한 교육.
박철웅 외 (2019).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미래엔.
성열관 외 (2009). 교육과정 일치도 및 콘텐츠 맵의 유용성과 비판적 활용 방안. 교육과정연구.
성종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비상교육.
손정우 (2013).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에너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에너지기후변화교육.
신정엽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천재교과서.
이경한 (2001). 추상성 정도에 따른 지리교과의 개념학습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자연지리의 개념과 인문지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리·환경교육.
조철기 (2013).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지리교육과정과 내러티브 지리교과서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조철기 (2011).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주태연 (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텍스트의 내러티브 서술양식이 학업성취도와 과목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교육.
Bruner, J. S.(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 Study on How to Restructure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Major Course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ang, Hyeo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role of narrative as learning material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ncepts emphasized in the 2015 revised Korean geography curriculum and the narrative materials used in textbooks. Three types of Korean geography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re concepts highlighted in the curriculum framework, those presented in the textbooks, the types of narrative materials used, and how these materials explain the concep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cept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framework and those in the textbooks ar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Narrative materials were found to be varied in type and primarily used to supplement cases of places, rather than as standalone explanations of concepts.

Key words : narrative text, narrative material, explanatory narrative style, core concepts, explanatory concepts

학교교육연구 논문집 투고 규정

1. **투고자격** 본 연구소의 정회원이 제출한 논문이나 자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내용**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논문, 종설, 자료 등을 게재하되 다른 학술지나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것은 제외한다.
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인쇄분량, A4용지 1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원고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되 한글 초록을 첨부한다.
4. **원고작성** 논문의 형식은 APA방식을 권장하나 본 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에서 작성한 내용을 **e-메일(또는 포털)**로 제출한다.
5. **게재결정**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마감** 투고마감은 매년 2, 5, 8, 11월말로 하고, 발행은 3, 6, 9, 12월말 연 4회로 한다.
7. **기 타** 교정은 투고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논제와 성명은 한글과 외국어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호

1. 본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교육연구 편집위원 선정 기준 및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학술지 “학교교육연구”에 관한 편집위원 선정 기준 및 논문 심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선정 및 역할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이 1인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별로 고루 선임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2인의 심사위원 선정
 -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심사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처리
 - 기타 학회지 발행 관련 주요 사항

제3조 논문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③ 3인의 논문심사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 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논지전개의 논리성
-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 ⑤ 논문초록의 명료성
- ⑥ 편집규정의 적합성
- ⑦ 논문의 완결성
- ⑧ 교육분야의 공헌도

제 5 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 ①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1차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③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④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 심사		2차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1차심사 결과(1)	1차심사 결과(2)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결과에 ‘게재 불가’나 ‘수정 후 재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제 6 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 7 조 기 타

- ① 학교교육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미 발표물에 한한다.
- ②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따른다.
- ③ 학술지의 편집 순서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첫째, 학교교육 일반 관련 연구
둘째, 국어교육 관련 연구
셋째, 영어교육 관련 연구
넷째, 사회과교육(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교육) 관련 연구
다섯째, 유아교육 관련 연구
여섯째, 특수교육 관련 연구
일곱째, 수학교육 관련 연구
여덟째, 과학교육 관련 연구
아홉째, 환경교육 관련 연구
열째, 기타 순서대로 제시한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학교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 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에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8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에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2009.6.23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정양식 1]

『학교교육연구』 논문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			
	영문 :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1			
	2			
	3			
교신저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e-mail		이동전화	
	주 소 (별쇄본 수령지)	(우편번호:)		
투고논문의 학위논문 여부	수여학위	석사 () / 박사 ()		학위논문 아님()
	학위수여일자			
	학위수여학교			
	지도교수			
	심사위원			
재 투고 여부	최초투고	권 호	재 투고 아님()	
KCI 유사도 검사율	%			
투고료 입금	입금자 명		입금일	

본 연구자(들)는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교육연구』의 심사 및 투고 규정에 따를 것이며, 표절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 논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연구소의 윤리규정에 따라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이양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교신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귀중

학교교육연구 제14권 2호 논문 투고 공고

1. 논문분야 : 교육연구 관련 분야에 관한 내용
2. 분 량 : A4 용지 16매 이내
3. 제 출 일 : 2024년 8월 31일
4. 제출서류 : 학교교육연구 논문작성규정을 준수하여 원고 작성 후 교육연구소
메일로 접수
5. 제 출 처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구소
6. 문 의 : 전화 053-850-4245